



지난 1월 4일, 제19대 김도균(체육대학원) 교수의회 및 국제지회 의장(좌측에서 네 번째), 김봉이(한의과대학) 서울지회 의장(좌측에서 세 번째), 조성훈(한의과대학) 의학지회 의장(우측에서 두 번째)이 당선됐다. (사진=교수의회 제공)

교수의회, “교수사회 메신저 역할 될 것” ‘차기 총장 선출 방법 5~6월은 돼야’

정을 잘 협의할 예정이다. 또 학교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안을 해 중요한 것은 학교와 의논해 빨리 개선할 것이다.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교수의회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교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화와 교수의 권익 신장도 모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대의기구입니다. 지난 1월 4일, 제19대 김도균(체육대학원) 교수의회 및 국제지회 의장, 김봉이(한의과대학) 서울지회 의장, 조성훈(한의과대학) 의학지회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경희’라는 이름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아 이를 교수의회로서 돌려주고자 한다는 제19대 김도균(체육대학원) 교수의회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Q. 교수의회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경희대학교에 들어와 ‘경희’라는 이름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경희’라는 이름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는 ‘내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다시 학교에 돌려줘야겠다’, ‘학교를 위한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수가 된 지 21년이 됐는데 주로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수의회에도 도

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다음으로 집사람과 딸이 모두 경희대학교 출신인데, 우리 가족이 다녔고, 또 다니고 있는 이 학교가 좀 더 ‘경희’로운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역할을 하는데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수 의장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여러 단체 대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수들의 중간 메신저 역할로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Q. 교수회장 당선 소감은?

A. 87.9%로 당선이 됐다. 단독 출마했는데도 찬성률이 높은 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다. 교수님들이 외부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보자 하는 바람으로 당선시켜준 것이라 생각한다. 높은 지지율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Q. 임기 동안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2023년 활동 계획과 목표는?

A. 교수의회인 만큼 교수 복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게 목표다.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는 소통 방법으로 카카오프러스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수님들과의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한다. 대외적으로는 교수, 학생, 직원, 총동문회 등 총 4개 구성원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의 가치는 교수, 학생, 교직원, 총동문회 등이 한마음이 되어야 가능한 만큼 서로의 연결을 통해 학교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려 한다.

올해 전반기에는 학생이 주인공인 만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축제 때도 교수님들이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Q.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 교수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대학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A. 경희대학교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대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부족하다. 우선 학교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들의 강의실, 휴게 공간, 해외에서 학자가 왔을 때 학교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설, 외부에서 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낮은 임금 인상률과 부족한 연구 지원으로 교수님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다른 대학들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금이 꾸준히 올랐는데 우리 대학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업적을 만들고자 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학교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대한 개선과 복지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교수들이 요구하는 것 중 무엇을 가장 먼저 개선할 계획인가?

A. 우선은 올해 임금 협상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그 다음 총장 선출이 있는 해인만큼 그 부분도 학교 측과 일

Q.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노조가 없다고 들었다. 교수들의 동참이 부족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교수노조가 설립된다면 교수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몇몇 교수들이 교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동참이 부족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수노조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교수의회는 학교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으로 교수님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이번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교수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선출 방법이나 절차 등과 관련해 이야기된 바가 있는가? 언제쯤 논의를 할 예정인가?

A. 학교법인과 이사회 등과 이야기를 해야하기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5월이나 6월 정도에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학생, 교수진, 교직원, 총동문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몇 배수로 선출할 것인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할 계획이다.